

January 26 도둑질, 나와 상관없는가?

• 사무엘하 12:1-15

사람들은 왜 도둑질할까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기가 이익을 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도둑질하다'에 쓰인 히브리어 '가나브'는 '타인의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법전은 도둑질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둑질은 여전히 만연한 죄입니다.

누구든 교묘하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세상에서 워낙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변명하거나 도둑질인지 인식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나단이 찾아와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삼하 12:1-4). 심지어 그 부자가 '4배'나 배상해야 한다면서 노발대발하기까지 했습니다(삼하 12:6). 출애굽기의 배상법에 따른 명령입니다(출 22:1). 남의 일일 때는 법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사안을 내 위주로 생각하니 죄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도둑질에 동참하곤 합니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과격 세일하는 물건을 구매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하고도 주인을 찾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찾다가 결국 자기 것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수중에 들어온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불법 복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가로채기, 위조나 변조로 혜택 챙기기, 약물 복용으로 메달 따기, 보험금 부풀려 수령하기 등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대가 없이 취한 모든 소득을 도둑질로 봅니다(약 5:4). 뇌물을 바치는 일(출 23:8),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잠 21:6), 무게와 부피를 속여 장사하는 행위(암 8:4-6), 고리대금(출 22:25),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말 3:8) 등도 모두 도둑질의 범주에 속합니다.

나는 도둑질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 ❶ 인지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행하던 도둑질은 없습니까?
- ❷ 도둑질을 방조하거나 동참할 때 어떤 평계들을 댈니까?